

보존과 존중을 통한 재생, 파리 풍피두 센터 리노베이션

유무종

프랑스 건축사, 도시설계사

풍피두 센터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개요 및 배경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소장한 루브르 박물관, 모네의 ‘피아노를 연주하는 소녀들’을 소장한 오르세 미술관과 달리 유명한 전시품이 없어도 사랑받으며 파리를 찾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찾는 박물관이 있다. 그곳은 바로 풍피두 센터이다.

본디 이곳은 박물관만을 목적으로 세워진 건물은 아니다. 샤를 드골의 후임자인 조르주 풍피두는 낡은 파리 국립 도서관의 기능을 분산시켜 도시 중심에 거대한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 기능을 연결하기 위한 현대예술 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였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담을 하나의 건물을 짓기로 하였다. 1970년에 국제설계공모가 이루어졌고, 1971년 7월 15일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의 계획이 당선되며, 지금은 전설이 된 현대 건축의 두 거장의 손에서 풍피두 센터가 탄생하게 되었다.

풍피두 센터의 설계 개념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공간이다. 어떠한 전시물도 막힘없이 전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 의지를 위한 기술적 성취로서 벽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가벽으로 대체하고, 공간 확보를 위해 외부에만 기둥을 6m 간격으로 설치하고 브레이스(Brace)로 횡력에 대응하였다. 또한 내부에는 2.3m의 워런(Warren) 트러스를 설치하였다. 그 결과 50m의 경간을 가진 무주(無柱) 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완벽하게 빈 공간을 위해 설비 파이프 또한 외부에 노출시켰다. 이 설비 시설은 기능에 따라 다른 색을 입혔는데 파란색은 공기 조화 시스템, 노란색은 전기, 녹색은 급배수, 빨간색은 에스컬레이터 및 수직동선을 나타낸다.

이처럼 건물을 지지하는 독특한 구조와 파격



퐁피두 센터와 외부로 노출된 색색의 설비 파이프

적인 디자인,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건물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 된 퐁피두 센터. 1977년 개관한 후 약 5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불세출의 건축이지만, 낙후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2020년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9월에 완전히 문을 닫고 2030년까지 5년간 리노베이션 공사에 들어간다. 프로젝트 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3월 담당 건축가를 선정 한 후 4월부터 임시 공간을 개발하였다. 이어 10월부터는 이전 작업을 시작하여 올해 들어 1월부터 공연장을 폐쇄하고 임시 공간에서 이전 프로그램의 설치를 시작하였다. 지난 3월에는 박물관과 공공 정보 도서관(La Bibliotheque publique d'information)을 폐쇄하고 올여름부터 전시장·매장·

서점이 차례로 문을 닫는다. 오는 9월에는 퐁피두 센터가 완전히 폐쇄되며, 올해 12월까지 모든 프로그램과 소장품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내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30년 재개관하는 것이 목표이다.

리노베이션 계획의 주안점

2023년 7월 퐁피두 센터 리노베이션을 위한 지명 설계공모가 진행되었고, 지난해 6월 모로 쿠스노키(Moreau Kusunoki)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공모안이 당선되었다. 리노베이션 계획은 단순히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건축물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중심에 두어 추가적인



낙후된 풍피두 센터의 모습

건설이나 확장 없이 건물의 현재 건축 양식을 보존함으로써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하였다.

리노베이션 계획은 크게 ‘기술’과 ‘문화’를 주제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기술 프로그램’ 측면을 살펴보면 먼저 건물의 외벽에 있는 석면을 제거하고 베이윈도(Bay window)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주요 구조물과 금속 가공물의 부식을 제거하고 페인트 칠을 하며, 바닥을 재설치한다. 내부 광장(Forum)에 있는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하거나 보수하고 전기 설비 및 위생 배관도 교체한다. 특히 사용 목적에 따른 구역별 공기 처리 수준을 조정하고 공조 시스템 및 공기 처리 장치를 교체한다. 냉각탑을 개조하고 저전류 시스템과 보안 설비도 현대화한다. 그리고 방화구역의 댐퍼 교체와 함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기술적 작업의 수행에 앞서 각각의 건축적·구조적·기술적 요소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단계별로 작업을 진행한다. 기능이 변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보존하고, 기능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재건을 하되 이전의 모습 그대로 재현한다. 마지막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재개발에 필요한 기능으로 수정을 한다. 단 수정

을 할 때는 정기 회의에서 본설계자인 렌조 피아노(Renzo Piano Building Workshop)에게 초기 설계를 존중하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안한다.

‘문화 프로그램’은 1977년 풍피두 센터 개관식에서 프란시스 풍주가 창안한 신조어인 ‘운동(Moviment)’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문화적·사회적·환경적 과제에 대응하면서 기관이 추구하던 이상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문적 경계를 넘는 다목적 공간, 도시에 열려 있고 주민은 물론 방문객이나 지나가는 사람과 관광객에게 참여와 반응을 이끌어 내는 공간, 미래 세대를 위한 자유롭고 거대한 공간, 추가 건설 없이 생태적 책임을 다하는 공간을 추구한다.

도시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유동적 연속성을 가진 풍피두 센터에서 외부에 있는 광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광장의 양쪽은 단차로 인해 활용도가 낮는데, 이 부분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계단식 좌석을 놓아 ‘초대받지 못한 예술(공연자, 댄서, 거리 예술가, 시인 등)’의 자발적인 표현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광장 한편에 있는 브랑쿠시 작업장(Atelier Brancusi)은 풍피두 센터의 연구실 및 자료실(아카이브 및 칸딘스키 도서관)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내부에 있는 포럼은 그 크기를 확장하여 초입부 안내 공간에 시각적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건물 정면에 있는 상징적인 에스컬레이터를 내부에도 설치하여 이동성과 연속성을 확장하였다. 아울러 기존 방화 외벽을 유리 모듈로 교체하고 시각적 장애물을 제거하여 더 많은 빛이 들어오도록 하고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하여 도시와의 시각적 접촉을 키웠다.

공공 정보 도서관은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를



퐁피두 센터 경사 광장의 리노베이션 전·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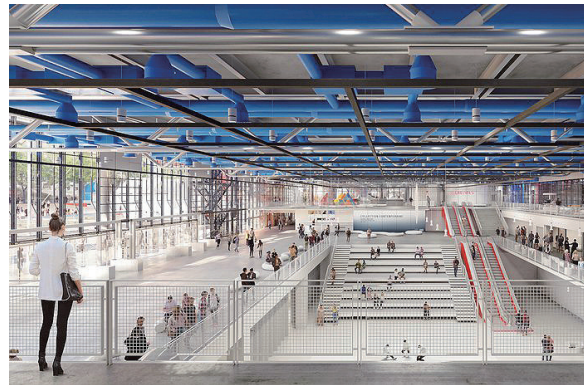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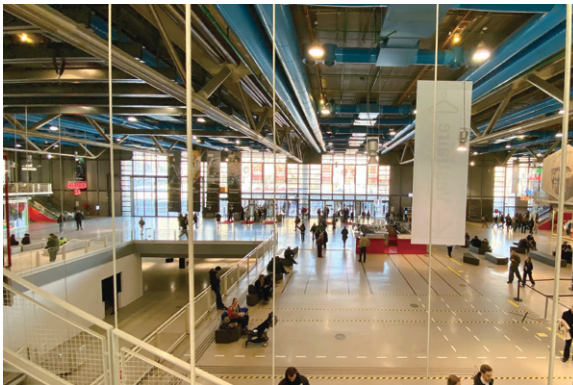
출처: 모로 쿠스노키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https://moreaokusunoki.com/fr/project/centre-pompidou-2030/>)

위한 즐겁고 현대적인 공간을 목표로 한다. 도서관 내부에 역시 포럼을 두어 도서관의 사회적·공공적 기능을 강조하며, 책과 정보를 찾으러 오는 이들 간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는 공간을 조성한다. 내부 공간은 유리로 둘러싸여 있어 도서관 로비의 전시 실에서도 내부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의 소장품은 내부·외부 풍경 속에서 서로 통합되고 상호 작용을 하며 내외부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문다.

환경적 접근 또한 리노베이션 계획의 중요한 요소이다. LED, 에너지 회수, 자연냉매 등 저탄소

접근 방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유지·관리 개입과 교체 주기를 제한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재사용을 최대한 높이고자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요소의 해체 단계에서 총 폐기물 질량의 54%를 재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약 1,200톤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건설 단계에서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면 60kg CO₂eq/m²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에 할당된 금액의 30%를 재활용 가구로 조달할 예정이다. 사용자와 환경을 고려하여 해체 과정을 단순화



퐁피두 센터 내부 포럼 리노베이션 전·후

출처: 모로 쿠스노키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https://moreaokusunoki.com/fr/project/centre-pompidou-2030/>)



공공 정보 도서관 리노베이션 전·후

출처: 모로 쿠스노키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https://moreaukusunoki.com/fr/project/centre-pompidou-2030/>)

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조립할 수 있는 건축자재와 구성 요소*를 갖추는 데 우선권을 두었다.

이렇게 분해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건축은 풍피두 센터의 초기 개념, 즉 ‘끊임없이 움직이는 공간’에도 잘 들어맞는다.

올해 9월부터 2030년까지 풍피두 센터가 완전히 폐쇄되는 기간에 풍피두 센터의 소장품들은 파리 각 지역과 각 나라에서 전시된다. 파리에서는 루브르 박물관, 그랑 팔레(Grand Palais)의 재개관과 동시에 풍피두 센터 리노베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부의 지원 아래 전례 없는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으며, 그 결과로 대규모의 근현대 미술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다. 프랑스뿐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의 도시**에서도 소장품 전시가 진행되는데, 서울 63빌딩에도 풍피두 센터 분관이 개관할 예정으로, 4년간 한국에서 풍피두 센터 운영권을 보장받게 된다. 풍피두 센터의 기록보관소 역할을 겸하는 공공 정보 도서관과 칸딘스키 도서관은 파리지 12구 테후아 드 프랑스 40번가에 있는 뤼미에르 빌딩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

앞서 파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전통 방식에 따라 재건하는 과정을 퍼포먼스화하여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이후 재개관식까지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설계 콘셉트와 설립 이념을 존중하면서 환경과 개발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풍피두 센터의 리노베이션 계획이 다시 한번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프랑스에서 건축은 단순히 짓는다는 물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 과정을 나누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또한 폐쇄 기간 중 각 지역과 세계 각국의 도시를 통해 박물관을 확장시키며 국제적 입지를 다졌다. 이를 통해 물리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 방문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상징적 문화 기관으로서 그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물론 이에 따라 치러야 하는 환경 부담도

* 반복되는 형태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여 향후 재사용이 용이하도록 구성된 재료

** 샌프란시스코, 뉴저지, 브뤼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서울, 상하이

있다. 센터의 소장품을 각 지역과 나라로 옮기는 과정에서 탄소발자국이 늘어나기도 하며, 향후 해외 관객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같은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풍피두 센터의 명성이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에 기회와 과제 모두를 안겨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건물을 재개발하거나 보수할 때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적 차원을 고려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처음에 건축물이 가지고 있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함으로써 기술의 영역을 문화적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다음 세대에 게 건축물에 담긴 정신은 그대로 물려주지만 기능과 기술은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변형하여 조화를 기반에 두고 개발을 이룬다.

국내에도 현재 많은 근대 건축물이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개발에 앞서 단순히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알 만한 건축가가 설계를 하였기에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건물이 온전히 쓰이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자주 찾는 명소인지, 건축적으로 훌륭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가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브루노 프레이(Bruno S. Frey)에 따르면 풍피두 센터는 슈퍼스타 박물관***으로 분류된다. 그 기준에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에 슈퍼스타라 할 만한 근대 건축물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 평가되어야 한다. 때로는 재개발을 통해 없던 가치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공간적 가능성을 가진 장소를 찾아 개발하는 것도 또 다른 방식의 리노베이션이 될 수 있다.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개념을 두고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어 결국엔 문화적 위상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

*** 박물관 경제학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①관광객 사이에서 큰 명성을 얻고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②많은 방문객이 있고 ③화가와 그림의 컬렉션이 있으며 ④건축물이 뛰어나고 ⑤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수익을 창출하고 그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박물관을 지칭한다(Frey, 1998, pp.113-125).

참고문헌

- 1 모로 쿠스노키(Moreau Kusunoki) 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 <https://moreaukusunoki.com/fr/project/centre-pompidou-2030/>
- 2 Centre Pompidou. <https://www.centrepompidou.fr/fr/le-centre-pompidou-se-metamorphose/le-programme-de-renovation>
- 3 Cour des comptes. (2024). La gestion du centre national d'art et de culture Georges Pompidou. Observations définitives.
- 4 Frey, B. S. (1998). Superstar Museums: An Economic Analysi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